



드디어 봄이다

진해 군항제

3.27~4.6

진해군항제는 군항 도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벚꽃축제다. 전야제, 팔도풍물시장, 예술문화공연, 이충무공 동상에 올리는 헌다헌화, 추모대제, 승전행차 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군항도시의 특성을 살린 군악·의창 페스티벌이 축제 기간에 열린다. 군악과 의창이 융합된 군대 예술 공연도 즐겨보자. 군악대의 힘찬 행진과 멋진 제복을 입은 의창대의 절도 있는 공연은 진해군항제에서만 볼 수 있는 명물이다.

www.changwon.go.kr

삭풍을 뚫고 마침내 봄이 왔다. 벚꽃, 산수유, 동백꽃... 곳곳에서 봄꽃 축제가 열린다. 서천 주꾸미 등 풍성한 먹거리와 제주 들불과 같은 전통문화도 봄의 전령에서 빼놓을 수 없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의 기지개를 활짝 켜고 봄을 맞이하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하는다면 더 기쁠 것이다.

글: 현경숙 기자

구례 산수유꽃축제

3.14~3.22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노란 산수유꽃이 지리산 자락에서 고운 자태로 피어나 볼소식을 전하고 있다. 봄의 전령사인 산수유 꽃과 함께 약동하는 새봄의 정취를 느껴보자. 산수유 꽃이 필 무렵 지리산 자락에는 고로쇠 약수 채취도 활발하다. 가족과 함께 꽃과 약수에 흠뻑 젖어보자. 지리산 주변 온천과 유명 관광 명소를 찾아 휴식하기도 좋은 계절이다.

www.gurye.go.kr



서천 동백꽃 주꾸미축제

3.14~3.29

선홍빛 동백꽃과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주꾸미가 조화를 이루는 축제다. 500여년 전 마량리 수군 첨사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며 심었다고 전해지는 마량리 동백 숲 일대에서 동백꽃 개화 시기에 맞춰 진행된다.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3월부터 5월까지가 산란기여서 살이 더욱 쫄깃쫄깃 고소해 맛이 일품인 주꾸미 요리 시식 행사, 어린이 주꾸미 낚시체험, 포토존 등이 준비된다. 예쁜 동백꽃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고 서해로 지는 노을을 감상하기에 좋다.

www.seochon.go.kr



이월드 발빛벚꽃축제

3.21~4.12

낮에는 즐겁고 밤에는 아름다운 발빛벚꽃 놀이다. 대구 테마파크 이월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벚꽃축제를 연다. 벚꽃 존이 12만평에 이른다. 올해는 로맨틱 벚꽃이 만들어 내는 '발라방할', 은하수 조명 아래 펼쳐지는 '벚꽃 은하수길', 벚꽃과 오로라 조합의 '벚꽃 오로라 정원'이 새로 선보인다. 벚꽃축제 이후로는 톨립 축제, 유채꽃 축제, 메밀꽃 축제, 수국 축제가 이어지는 봄꽃 페스티벌이 계속된다.

www.eworld.kr



* 축제 일정은 주최 측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구례 산수유꽃축제

+ 진해 군항제

+ 이월드 발빛벚꽃축제

+ 서천 동백꽃 주꾸미축제